

“불교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시설’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추석맞이 송편 만들며 봉사자들도 격려
“긴급 상황 여성주거시설 필요” 조언도

“여러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사바세계와 함께 하는데 불교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4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구로4동에 위치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를 찾았다. 국내 최초의 미혼가정 지원센터인 이곳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서울시로 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곳. 미혼 여성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과 더불어 학업중단 여성을 위한 검정고시 지도과정인 도담학교, 긴급여성지원 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가 사회 곳곳의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내 최초, 유일의 시설인 만큼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이영호 센터장은 “이곳을 찾는 여성들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 원장스님의 방문이 시설과 이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러 총무원장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열린 ‘한가위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실을 찾았다. 20여 가족이 이날 ‘라이스클레이’를 이용해 형형색색의 송편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송편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아이들이 만들어준 송편을 먹으면서 총무원장 스님은 한부모가정을 격려했다.

아이와 어머니에게 일일이 단주를 걸어준 뒤 시설을 둘러본 총무원장 스님은 “긴급한 상황의 여성을 위한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 자비나눔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보다 많은 미혼여성을 위해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이후 매달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등이 함께 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추석을 앞둔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를 찾아 함께 송편을 빚고 단주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행자교재 전면 개편 종단 행자교육이 달라진다

교리 경전…주제별로 구성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 작업
“개별 일상교육 수월해질 듯”

체계적인 행자교육을 위해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이 행자교육 교재(사진)를 새롭게 발간했다. 교육원은 지난 8월27일 회합한 47기 수계교육에 입교한 행자들에게 교재를 나눠준데 이어, 종단 등록 행자들에게 교재를 배포한다. 일상교육과 수계교육에서도 활용할 행자교육교재가 발간되면서, 개별사찰에서 스님 재량껏 진행됐던 행자교육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교재는 월간 행자교육일정에 맞춰 크게 교리, 습의 염불로 구성돼 있다. 〈부처님의 생애〉〈기초교리〉〈초발심자경문〉〈사미율의〉〈사미니율의〉〈사십이장경〉〈조계종사〉〈행자필수염불〉〈습의교육〉〈경구 독송집〉 등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교육원은 새 교재가 사찰에서 일상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종단 행자교



육은 등록사찰에서 하는 일상교육과 행자등록을 마친지 3개월 이내의 행자를 대상으로 종단이 시행하는 입문 교육, 분사교육, 수계 전 16일간 진행되는 수계교육으로 나뉜다. 그러나 행자기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상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행자들의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재활용이 불편해 일상교육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의 행자교육교재는 한문이 많아 읽기 어려운데다가 내용이 흩어져 있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교리와 실천 1, 2〉〈습의교육〉〈독송집〉〈경구독송집〉과 행자수첩 등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책 1~2권에 부처님 생애나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수행법, 사미(니)율의가 총망라돼 있는 등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새 교재는 기존에 수록된 내용을 주제별로 책을 나누고, 부처님 생애나 조계종사 등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보충해 행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한문사용을 최소화 하고 한글화했으며, 오탈자를 수정하고 윤문작업을 거쳐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질이 박스에 담겨 있어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며 공부하기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교육원은 종단 등록을 마친 행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교재를 나눠주고 있다. 남행자에게는 〈사미율의〉를 포함 9권이, 여행자에게는 〈사미니율의〉를 포함 9권이 각각 배포된다. 여기에는 총무원장 스님이 행자들에게 행자생활 잘하라는 격려의 뜻을 담은 보리수 염주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행자교육교재가 완성돼 일반 사찰에서 스님들의 행자교육이 좀 더 수월해졌다”며 “미래 한국불교를 이끈다는 사명감을 갖고 행자교육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h@ibulgyo.com

찾아가는 상담·맞춤형 법문 SNS포교 일등공신은 스님들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인드라마’ 형성

스님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까이하면 ‘스님이 왜?’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어쩌다 스님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면 스님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다. 편이적인 기계문물은 속인들의 단점이나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칭한다. 스님들은 이들을 포교방편 삼아 작게는 1000여명, 많게는 1만여명의 신도들 곁으로 날마다 다가

가서 ‘맞춤형 법문’을 설한다. 초창기 젊은층이나 유명인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인격적 비방, 폭로 등으로 ‘온라인 폭력’이

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SNS에 따른 폐해도 없지 않지만 스님들이 가담하면서 SNS는 맑고 향기로운 소통창구로 거듭나고 있다.

스님들의 ‘SNS 포교’는 스님들의 ‘전공’에 따라 색다르다. 교리와 수행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학구파 스님’이 있는가하면, 자비 실천과 나눔을 테마로 손을 내미는 ‘사회복지파 스님’도 있다.

사회이슈에 대한 단상을 부처님 가르침과 연관시켜 공유하는 ‘사회생활형 스님’들은 SNS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일찍이 ‘대국민 멘토’로 올라선 법륜스님과 해민스님의 모습을 있게 한 것도 ‘SNS-트위터’로 시작된 사회참여, 생활법문이 그 시작이었다.

이외에도 문학적 감수성을 보여 마음을 넓혀주는 ‘스님 시인’, 날마다 같은 시각에 시의적절한 경전구절을 발송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3면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수원 봉녕사 세계사찰음식대향연 개최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스님)는 ‘제6차 세계사찰음식대향연’을 오는 10월3일과 4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한다.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사찰음식대향연은 한국의 전통사찰음식은 물론 10개의 불교국가 사찰음식을 오감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대향연은 오는 10월3일 사찰음식경연대회와 10개 불교국가 사찰음식 전시를 비롯해 선재스님의 오래된 절집의 발효음식, 대안스님의 사찰음식, 전통불화(도일스님), 불교카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어 10월4일에는 학인스님 염불 시연과 더불어 신나는 공연한마당, 내빈 저녁공양 등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찰음식경연대회는 개인 10팀과 단체 2팀을 선발한 뒤 본선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사찰음식 요리실력을 겨루게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2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하며, 시상식은 10월5일 오후4시30분 열린다. 참가희망자는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ng.org)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와 출품음식 설명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2일까지 사찰음식대향연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templefood@bongnyeongsang.org) 또는 방문, 우편접수하면 된다. 출품음식 설명서에는 음식명은 특징, 재료, 레시피, 완성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3041호는 9월17일 발행됩니다.

특별기획 지금 왜 ‘금오선사와 불교정화’를 이야기 하나 7면

2014 가을 관광주간과 함께합니다

다시 시작 합니다 희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4인 이하 가족
초·중·고 자녀는
참가비 무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희망을 말해요"

희망을 만드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 대상 | 전국민 가족단위 참가자 자녀 무료 혜택 제공
(4인 이하 가족 초·중·고 자녀에 한함)

| 장소 |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10곳

| 신청기간 | 2014년 9월 1일(월) ~ 19일(금)

| 체험기간 | 2014년 9월 20일(토) ~ 10월 5일(일)

※ 신청 기간 내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에서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